



‘탈도 말도’ 많은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일정 놓고 다시 ‘삐그덕’

NTT 도코모 서비스 연기 영향 ...기술적 · SW분야 등 문제점 속출

3세대 이동통신으로 알려져 있는 IMT-2000 사업이 당초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이는 NTT 도코모가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4개월 연기 방침을 발표함에 따른 것이다.

NTT 도코모는 세계최초로 3세대(IMT-2000)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업체로 주목을 받아 왔다.

특히 동기식과 비동기식간의 표준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NTT 도코모의 상업화는 비동기식 방식의 성공 가능성으로 인식되어 왔다.

NTT 도코모 자체적으로도 IMT-2000의 성공이 세계적인 통신서비스 업체로 부상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인식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외부로부터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삼성경제연구소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NTT 도코모는 2001년 5월에 실시하기로 했던 상업서비스를 오는 10월로 연기했다.

대신 도쿄 근방에서 약 4000명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기술적인 문제가 연기의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NTT 도코모의 사업연기는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기술문제들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선 거론될 수 있는 문제는 가입자가 셀간을 이동하는 도중에 전화가 끊기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 분야의 버그 문제이다.

신호를 교환시키거나 기지국에서 컨트롤하는 과정에서 버그가 나타나고 있으며, 단말기 부문에서도 버그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 번째는 지난 3월에 새로 보완된 국제 로밍(Roaming)에 관

한 표준규격을 수용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그 동안 NTT 도코모의 서비스가 구사양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말기와 네트워크에 새로운 규격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이러한 문제 이외에도 단말기 공급능력 등 3세대 사업을 위한 기반이 부족했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5월 시점을 기준으로 11개 업체가 단말기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하나, 실제로는 2개 업체만이 3세대용 단말기를 공급할 수 있는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다.



서비스연기 파장 전 세계로 확산

NTT 도코모의 상업화 연기 발표는 그 동안 IMT-2000을 준비해 왔던 관련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비동기식 방식으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던 일본 J-Phone도 2002년 가을로 상용화를 연기한다고 발표했고, 최근에는 스페인 및 영국에서도 3세대 사업에 대한 상용화 연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사업연기의 파문이 사업자들의 단순한 사업연기 차원을 넘어 비동기식 기술에 대한 의문으로 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NTT 도코모가 사업을 연기한다고 발표하기 수개월 전부터 미국의 켈컴은 비동기식 방식으로는 당초 일정대로 사업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한 바 있다.

즉 비동기식은 기술적인 문제가 많아 상업용 운영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당시에는 이와 같은 주장이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NTT 도코모가 사업을 연기한다고 하자 켈컴의 주장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3세대 사업 장기 연기 가능성도 대두

NTT 도코모의 사업연기로 인해 그 동안 간헐적으로만 언급되던 3세대 이동통신 사업의 장기 연기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전문연구기관인 쥬피터는 3세대 서비스가 2003년에서 2005

년경에 이르러야 시장에 보급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고, 켈컴도 3세대 사업이 2004년이나 2005년경까지는 상업화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사업성 자체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된 측면이 강하다.

즉 3세대 서비스가 현재 2.5세대라고 하는 GPRS나 CDMA2000-1x와 차별성이 크지 않아 업체 입장에서는 3세대망에 대한 투자를 계속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서비스 사업자들의 수익을 대폭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응용분야가 나오기 전까지는 3세대 사업의 의미가 반감될 수 밖에 없어 서비스의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내 업체 고민...유럽업체들과 유사한 상황

NTT 도코모의 사업연기 파장은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다.

이미 SK 텔레콤 등이 IMT-2000 사업의 연기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들이 아직은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현재 국내 업체들은 데이터 전송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CDMA2000-1x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초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수조원을 필요로 하는 3세대망에 선행 투자할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더욱이 현재 국내 1위의 이동통신 업체인 SK텔레콤은 시장점유율 50% 제한 규정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이다.

결국 NTT 도코모의 사업 연기로 인해 촉발된 3세대 서비스에 관한 논쟁은 그 이면을 보면 서비스의 수익성에 대한 문제가 개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 동안 업체들이 드러내 놓고 얘기하지 못했던 수익성에 대한 고민들이 표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국내나 해외나 공히 3세대 이동통신 사업이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응용분야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발굴하느냐가 관건이 되어가고 있다. ☞

